

延世大學校史學硏究會

1985년도

사학과 봄철 정기고적답사

- 선사 · 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하 현 강

1985. 5.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 답사를 떠나며 -

아날의 푸른 빛이 전해지는 3월, 사학과에 들어와서 3년간에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지역은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선사·백제 유적입니다. 궁궐과 주간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역사와 현실을 전라에서 사학도로서의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1985년도

사학과 봄철정기고적답사

- 선사·백제 문화권을 중심으로 -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연구대상은 인간 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이 남긴 유적과 유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그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도교수: 하 현 강

이러한 본질을 고집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적식은 '역사의식'의 결실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란 그 곳에서 살아내고 있는 이동과, 이 땅에서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이지만 종교받은 대학 속에서 시도가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학과 학생회

답사준비에 애쓴 본에게 감사드리며.....

- 답사를 떠나며 -

나날이 푸른 빛이 짙어가는 5월, 사학과에 들어와서 3년만에 답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답사지역은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선사·백제문화권이 될 것입니다. 강의와 책만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서 역사의 현장들을 접하면서 사학도로서의 우리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바로 답사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이라는 학문의 궁극적인 연구대상은 인간 한 개인이 아니며 인간이 남긴 제도나 유물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 성립해 있는 "관계"와 그 관계의 발전,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 등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학의 역할이라 생각할 때, 답사는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답사 중에 우리가 접하는 것은 수만년 또는 수백년전의 인간이 남긴 유적과 유물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들의 슬기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들의 사회, 나아가서는 그 속에 성립해 있었던 인간관계에까지 환원시켜 시대성격을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해답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스스로 진지하게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의 역사의식은 더한층의 깊이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답사를 통하여 그들이 살았던 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과, 이 땅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답사준비에 애쓴 분에게 감사드리며

= 차례 =

머리말	1
답사일정 및 지역	3
금산사(미륵전/5층석탑/대적광전/대장전/6과다층석탑/노주/당간지주)	4
익산(미륵사지/미륵사지석탑/익산 고도리석불입상/미륵사지당간지주/왕궁리5층석탑)	6
은진(관촉사/미륵보살입상/석등/연꽃대석)	7
부여(정림사지/5층석탑/석불좌상/부소산성/부여박물관/사택지적비/유인원기공비/능산리고분군/벽화분)	8
무량사(극락전/5층석탑/석등)	11
갑사(대웅전/누도/철당간 및 당간지주/갑사동종)	12
공주(송산리 6호분/송산리 5호분/무녕왕능/중동석조/반죽동석조/반죽동당간지주/마곡사)	13
청주(용두사지철당간)	16
보은(삼년산성)	17
삼년산성구조도/용두사지철당간명분	18
공주석장리 구석기유적	19
청원 두루봉동굴유적	20
건축물 각 부분 명칭	22
탑 부분 명칭	23
신증동국여지승람(전라도/전주부	24
익산군	25
충청도/보은현	26
공주목/부여현	27, 28

- 답사일정(1985.5.1 - 5.4) -

5월1일 : 서울 - 금산사 - 익산 - 부여

5월2일 : 부여 - 무량사 - 은진 - 갑사

5월3일 : 갑사 - 석장리 - 공주 - 갑사

5월4일 : 갑사 - 청주 - 보은 - 서울



**금 산 사(金山寺)

백제 법왕(法王) 원년(599)에 창건하였고 신라 혜공왕 2년(766)에 진표율사(眞表律師)가 법상종을 개종하면서 증건하였으며, 고려 문종 33년(1079)에 혜덕왕사(慧德王師)가 증창하여 대가람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1597년의 정유재란 때 불탄 것을 수문대사(守文大師)가 선조 34년(1601)부터 재건하기 시작하여 인조 13년(1635)에 완성한 후 오늘에 이른다. 935년, 후백제의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유폐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 미륵전(彌勒殿) - 국보 제 62호

신라 혜공왕 2년에 미륵본존을 봉안하기 위하여 만든 절의 중심건물이나, 불탄 것을 인조 13년에 재건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원형은 알 수 없다. 건물의 외부는 3층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는 미륵불입상을 세우기 위하여 위·아래가 뚫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총높이 14.6미터. 1층은 "대자보전(大慈寶殿)", 2층은 "용화지회(龍華之會)", 3층을 미륵전이라 하는데 모두 미륵불을 봉안하는 법당을 뜻한다. 미륵전에서 바라보이는 높은 대위에 석가여래의 사리를 봉안한 방등계단(方等戒壇)이 있는데 그 중심부에는 종모양의 부도가 있어, 불사리를 봉안했다는 의미에서의 불탑·계법의 전수의를 집행하는 의미에서의 계단이라는 두 기능을 갖고 있다. 이 계단은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려시기 계단양식의 모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 5층석탑 - 보물 25호

금산사 경내 송대(松臺)에 설치된 석종 앞에 세워져 있다. 고려시기의 것으로 재료는 화강암. 높이는 약 7.2미터로 신라석탑의 기본형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단(戒壇) 앞에는 석등을 두는 것이 통례이나 여기서는 석탑을 건립하였다. 하층 기단이 상부 탑신에 비해 협소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대적광전(大寂光殿) - 보물 제 476호

전면 7칸 측면 4칸의 팔작지붕 건물. 大雄大光明殿이라 불려왔던 것으로, 수계(受戒)·설계(說戒)·설법을 행하던 곳이다.

* 대장전(大藏殿)

비교적 단조로운 법당으로 "금산사 사적기"에 의하면 이 건물은 미륵전을 장엄하게 하는 정중(庭中)목탑이었다 한다.

* 6각다층석탑 - 보물 27호

대적광전 앞뜰에 있는 점판암의 석탑이다. 고려시대에 들어서 유행했던 4각, 6각, 8각 등의 소형청석탑(小形靑石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원래는 고려 문종 때 혜덕왕사가 세운 봉천원(奉天院) - 현 미륵전 동쪽에 터가 있다 - 에 있던 것을 임란 때 소실되고 남은 부분만 옮긴 것으로 전한다. 현재 11매의 옥개석은 남아 있으나 탑신은 왼쪽의 2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기단대석에는 사자상이, 옥개석의 추녀 밑과 탑신의 각 면에는 불상·연화·천인상·용 등의 무늬가 선각되어 있다.

* 노주(露柱) - 보물 22호

노주란, "금산사지(金山寺誌: 金包光先生編)"에 의하면 불전 앞에 세워진 두 개의 깃대기둥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사각형의 석좌대와 그 위에 얹혀 있는 석물을 말하고 있다. 이는 대적광전 앞뜰 서쪽에 있는데 基石 위에는 사각형의 꽃무늬가 조각된 높이 약 45센티의 대위에 높이 약 70센티의 장방형 대석(臺石)이 세워져 있으며, 그 위에는 仰蓮文이 조각된 방형대석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불꽃모양의 보주석(寶珠石)이 올려져 있다. 이들 석물은 본래 별개의 것을 좇아 모아 조립한 것 같으며, 각각의 수법이 우아하다. 특히 기대(基臺)의 왼쪽 伏蓮手法은 당간지주의 수법과 동일하여 고려 때의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금산사 당간지주 - 보물 28호

절입구 금강문을 들어서면 동쪽에 있다. 기단은 장방형이며 각 부분의 양식 수법이 난숙된 격식을 갖춘 것이다. 높이 3.1미터, 고려 때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 의산 (義山)

의산은 백제가 일시 도읍했던 곳으로 금마면(金馬面)과 왕궁면은 그 중심부에 해당한다. 백제의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으로, 미륵사지·왕궁리 석탑·보살상·연동리 석불좌상·고도리 석불입상 등이 있다.

* 미륵사지(彌勒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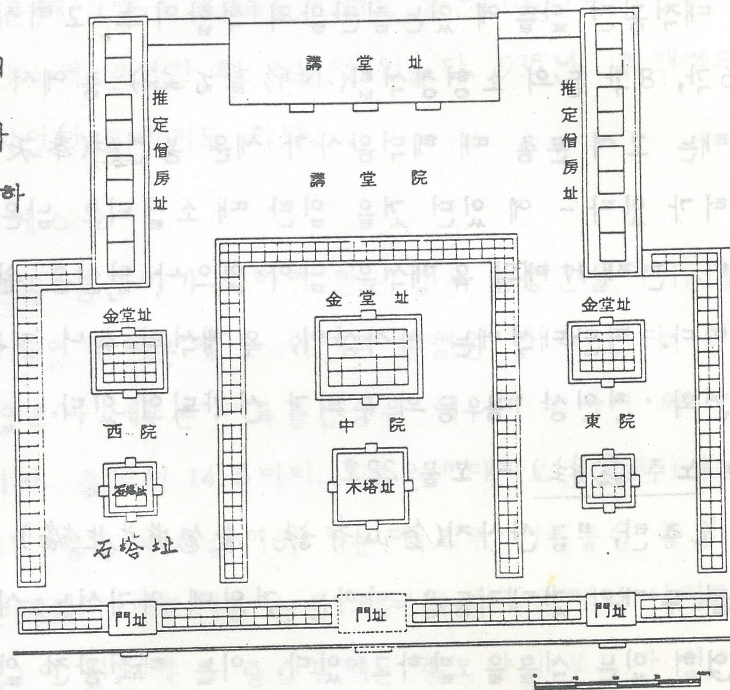
창건에는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에 얽힌 연가설화가 전한다. 미륵사상에 바탕하여 세워진 것으로, 당시 동양최대의 규모였다고 한다.

미륵사지석탑 : 화강암. 현재높이 14.2미터. 모두 7층으로 1층은 3칸에 사방에 문이 있고 중앙의 네모기둥이 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목탑의

형식을 최초로 가장 충실하게 석재로 표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동탑지 발굴에서 기단이 나오고 그 뒤에 석등대석이 나왔는데 연꽃무늬의 새겨진 수법으로 보아 백제 고식으로 보이고, 건물지 바닥에서 나온 많은 유리제품은 이곳에서 유리를 생산하였으리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 의산 고도리 석불입상 2구 - 보물 46호

입체감이 전혀 없고 불상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석상이다. 2구가 200미터의 거리를 두고 마주 서 있으며, 높은 머리위에 네모난 갓을 쓴 것이 관촉사의 보살상과 같은 형식이다. 이마가 좁고 볼이 넓으며 눈이 가늘고 입술이 두꺼워 속기(俗氣)가 으른다. 전체가 위가 좁고 밑이 넓은 사다리꼴의 방주



- 미륵사지 가람배치 복원도 -

형(方柱形)으로 표면에 약간의 가공을 했을 뿐이다. 고려말기(진홍섭 추정)의 것으로 보인다.

* 미륵사지 당간지주 - 보물 236호

원래의 위치에 그대로 있어 미륵사지의 규모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로 동서로 2쌍이 90미터 간격을 두고 서 있다. 받침돌은 부서져서 묻히고 조금 나와 있는데 여타를 이어놓은 것이다. 옆면에 안상이 새겨져 있고, 윗부분의 획임새와 가장자리의 도돌미 등이 공주 반죽동의 것과 유사하다. 아랫위 너비의 착가 많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은 시각상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예술효과라 하겠다.

* 의산 왕궁리 5층석탑 - 보물 44호

높이 8.5미터. 화강암. 통일신라(?). 이는 미륵사탑·정림사탑의 다음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60년대 중반에 보수할 때 나온 불상(국보 123호)·사리함·금판 금강경 등으로 보아 백제말기 혹은 후백제의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탑의 형식은 5층석탑이나, 사이기둥이 새겨지고 판자모양의 돌이 이어져 있으며 고임받침 등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 신라통일기 이전으로 보기가 쉬운 편이다. 밑에서 보면 경쾌한 맛이 있고 옆에서 보면 장중한 느낌을 준다. 기단석 네 모서리에는 각기 사자 등을 두었던 흔적이 보인다.

** 은진(恩津)

* 관촉사(灌燭寺) - 충남 논산군 은진면 반야산

고려 광종 19년(968)에 창건하였고, 법당은 우왕 12년(1386)에 건립하여 조선 선조 14년(1581)과 현종 15년(1674)에 중수하였다. 옛날 중국의 지안이란 명승이 이 절에 세워진 석조 미륵상을 보고 "아아 - , 마치 촛불을 보는 것같이 미륵이 빛난다" 하면서 예배하였다 하여 '관촉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경내에는 미륵보살상을 비롯, 석등·사리탑·연꽃대석·사적비 등이 있다.

미륵보살입상 : 국내최대의 석조 불상으로 기술이 기백을 따르지 못한 중은

예이다. 보물 218호. 높이 18.2미터. 머리 위에는 높은 원통형의 관(冠)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에는 머리칼이 표현되어 있으며 그 위의 관의 네 귀퉁이에는 풍령(風鈴)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은 근삼이 늘어져서 볼이 넓어지고 턱에는 군턱이 있다. 눈은 길게 옆으로 돌아갔고 코·입·귀는 모두 크다. 몸은 커다란 돌을 원통형으로 깎아 만든 것으로 인체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옷주름은 음각선으로 나타냈는데 간략하고 형식적이다. 이 불상은 고려 광종 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석등 : 보물 232호. 높이 5.45미터. 불칸이 위아래 2칸으로 된 고려 석등으로 연꽃무늬 받침돌에 지붕도 이중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약간 둔한 느낌을 준다.

연꽃대석 : 흙탕물 속에서 줄기가 자라고 연잎이 솟아오르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새긴 함찬 대석의 두드러진 조각이다.

** 부 여 (扶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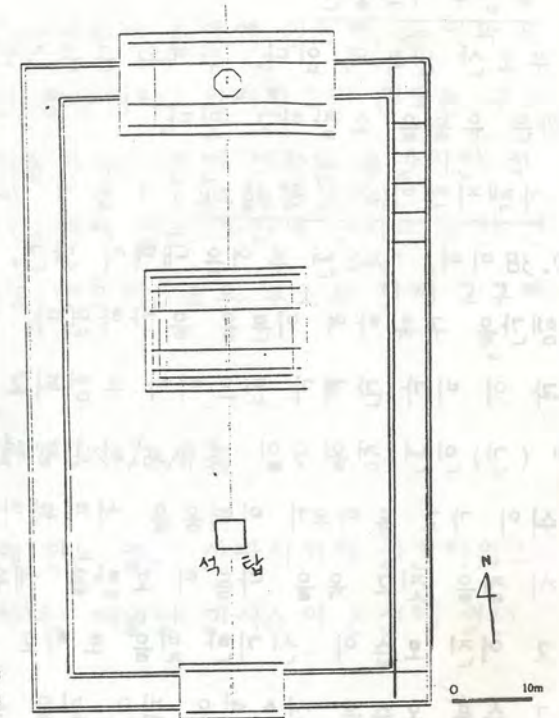
부여는 백제 제 26대 성왕(523 - 553) 16년에서 멸망 때까지 약 120여년간 도읍한 곳이다(한 때 의산으로 천도한 적도 있다). 고구려의 압박에 밀려 웅진(공주)으로 옮긴 백제가 새로운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첩첩히 둘러싸인 웅진과 같은 요새지를 벗어나 좀더 넓은 평야지대에 도읍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다. 사비(부여)는 광활한 금강하류 유역의 충적평야를 내려다보는 구릉으로, 고대의 왕도로서는 적합한 땅이며 수륙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본래 소부리 또는 사비성이라 하였고 천도후에는 남부여라고도 불렀다.

* 정림사지(定林寺址) - 부여읍 동남면 소재

백제의 절터로 1942년부터 첫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때 "大平八年戊辰 定林寺藏當草"라는 명문이 있는 기와가 발견되어 정림사라 부르게 되었다. 고려 제 8대 현종 19년(1028)에 중수한 것으로 추정한다. 5층석탑과 석불좌상이 있다.

5층석탑 : 국보 9호. 높이 8.33미터. 7세기초의 것으로 추정. 재료는 화강암. 언뜻 보면 목조탑의 구조와 비슷

한데 좁고 얇은 단층기단과 방형우주(方形隅柱)에 보이는 엔터시스수법, 얇고 넓은 옥개석의 형태, 옥개석 모서리를 위로 올린 것, 목조건물의 두공(斗拱)을 변경시킨 옥개석 밑의 받침수법 등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이는 동시에 탑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침략한 후에 탑신의 4면에 기공문을 세웠다. 현존하는 백제의 탑중 희귀한 것이며 세련되고 창의적인 조형을 보이고 있다. 날듯한 가벼운 느낌을 주며, 멀리서 해 또는 달빛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는 광경이 예술성을 돋보이게 한다.



- 정림사지가람배치복원도 -

석불좌상 : 보물 108호. 전체높이 5.62미터. 심한 마멸과 화재로 윤곽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손상을 입고 있다. 불신과 대좌에 손상이 있으나 대좌의 형식이나 조각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석탑 북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현종 때의 것으로 추정한다. 불상의 종류는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로 추정한다.

* 부소산성 : 사적 5호. 면적 225,725평. 부소산 산정을 중심으로 축조된 백제의 도성이다. 산성지 이외에도 군창지·영월대·송월대·낙화암·백화정·사자루(泗沱樓 또는 泗沱樓)·고란사·유인원기공비(현재 부여박물관 뜰) 등이 있다. 부소산 아랫배마강가에는 조룡대(釣龍臺)·고성진(古省津)·천정대(天政臺)·자온대(自溫臺) 등이 있다 - 안내서 뒤의 "신증동국여지승

람"을 참조할 것 -.

* 국립부여박물관

부소산 남쪽에 있다. 백제의 궁궐지로 추정되는 자리이다. 5천 7백점에 가까운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 : 높이 102미터, 너비 0.38미터. 1948년 부여읍 내에서 발견. 화강석 위에 행간을 구획하여 비문을 음각하였다. 정림사 본당과 이 비가 관계가 있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내용 : "(갑)인년 정월 9일 奈祇城砂宅智積이 해와 달이 쇠이 가고 돌아오기 어려움을 서러워하여, 쇠를 새겨서 절을 짓고 옥을 다듬어 보탑을 세우니 그 능능하고 어진 모습이 신기한 빛을 토하고 구름을 보내며, 그 슬픈 모습은 성스러운 밝은 빛을 뿜은"

甲寅年正月九日奈祇城砂宅智積
慷身日之易往慨體月之難還穿金
以建瑯堂鑿玉以立寶塔巍巍慈容
吐神光以送雲錢錢悲猊含聖明以

당유인원기공비(唐劉仁願紀功碑) : 보물 21호. 높이 3.35미터, 비신높이 2.02미터, 폭 1.08미터. 화강편마암.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시 건립한 것으로 실제로는 당비라 할 수 있는데, 귀부는 없으나 이수의 원규형반룡(圓圭形蟠龍)은 매우 사실적이며 당비의 전형적 양식을 보이고 있다.

* 능산리 고분군 - 사적 14호

능산리 고분군은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2키로미터쯤 떨어진 산의 남쪽 기슭에 있으며, 또다른 세 고분군이 부여에서 논산 쪽으로 가는 도로 북쪽에 나누어져 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제일 중앙에 있는 6기의 고분인데 위쪽에 3기, 아래쪽에 3기가 2열횡대로 있고, 유명한 벽화가 있는 고분은 앞줄의 동쪽 끝에 있다. 모두 석실분으로 원래는 봉토가 많이 손상되고 형태도 크지 않았으나 1972년 조경공사 때 손질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들 고분은 이전에 모두 도굴된 것을 일인들이 1914년부터 1923년까지 정리조사하였는데 벽화분도 이때 발견되었다.

벽화분 : 봉토 직경이 27미터로 주위에 호석이 있고, 현실은 2.97 × 2.1 미

터(높이)의 산자형이다. 각 벽과 천정은 각각 한 개의 거대한 판돌로 끼워맞춘 편마암 판석으로 만들었으며, 바닥은 장방형의 박석(礪石)으로 깔고 그 중앙에 관대를 만들었다. 또 연도는 남쪽벽 중앙에 있으며, 높이와 폭이 입구쪽보다 바깥쪽이 약간 커지는 2단 형식이다. 이러한 2단 연도는 구조 방법과 함께 고구려의 토포리 1호분과 비슷하다. 한편 벽화는 물갈이한 석면에 직접 4신도를 그린 것으로, 천정에 그려져 있는 바람에 날리는 듯한 연꽃의 모습이 고구려 후기의 벽화와 통하고 있으며, 묘의 구조와 함께 고구려와 연결됨을 나타내고 있다.

** 무량사(無量寺)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 신라시기에 창건하였고 그후 여러차례 중수하여 연대가 불분명하다. 매월당 김시습이 은신해 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극락전(極樂殿) : 보물 제 356호. 조선 중기의 중층(重層) 건물이다. 위아래가 통해 있으며 윗층은 정면 3칸의 12.23미터, 측면 2칸에 7.34미터의 팔작지붕이다. 내부는 위아래가 통해있다. 앞면 들창은 살문을 달았고 기둥 위에 3가지 고임받침을 하였으며 윗층은 4가지 고임받침을 하였다.

5층석탑 : 대웅전 앞에 건립된 높이 7.5미터 하층 기단 폭 5.2미터의 화강암으로 만든 방형석탑이다. 2층 기단으로 되어 있으나 하층기단이 매몰되어 있어 하층기단에 안상(眼象)이 조각되었다 하나 확인할 수 없고, 갑석(甲石) 밑에 부연(附緣)이 있다. 탑신은 옥개에 비하여 좁은데 2층 이상의 체감으로 온화하다. 옥개석은 개석과 받침이 각각 다른 돌로 되어 있고, 상륜부는 노반(露盤)과 복발(覆鉢)과 앙화(仰花)가 얹혀 있다. 전체적으로 결구(結構)의 정제됨과, 기단에 비하여 탑신이 장중하여 상하의 조화를 얻었다. 건립 연대는 2층 기단·옥개석의 층단(層段) 받침수법 등 신라양식을 따랐으나 고려초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석등 : 보물 233호. 높이 2.5미터의 화강암으로 된 신라시대의 석등. 밑받침돌은 땅에 묻히고, 굽은 연꽃잎이 새겨진 괴임돌 위에, 8각의 날씬한 기둥에 휘인 듯한 연꽃 가운데 괴임돌에 석등의 불칸을 새기고 테두리를 돌려서 창문을 가리기 위한 구멍을 위아래로 뚫었다. 지붕은 물매가 아름답게 잡히고 모서리 처마가 가벼이 올라가 연꽃 봉오리 모양의 노주를 만들었으며 지붕과의 사이에 가볍고 둥근 기둥형식을 두어서 날씬하고 우아한 느낌을 주고 있다.

** 갑사(甲寺)

공주군 계룡면 증장리 계룡산 중턱에 있다. 백제 구이신왕(久爾辛王) 원년에 고구려에서 온 阿道和尚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무령왕 5년(505)에 천불전(千佛殿)을 증창했고, 위덕왕 3년(556)에 혜명대사가 천불전·普光明殿. 大光明殿을 증건했으며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의상대사가 堂宇 천여칸을 증수하였다. 이 때 의상대사가 절 이름을 계룡산 갑사에서 계룡갑사로 고쳤다. 석가여래 사리탑·철당간, 그리고 문화재로 '월인천강지곡'이 있고, 선조 16년(1583)에 만든 종과 효종 원년(1649)에 만든 16掛佛龕가 있으며, 딸린 절로는 내원암(內院庵)·대적암(大寂庵)·대성암(大聖庵) 등이 있다.

대웅전 : 정면 5칸, 측면 4칸의 다포계(多包系)이며 맞배목조 기와집이다.

철당간 및 당간지주 : 보물 256호. 높이 15미터, 당간지름 0.5미터, 24마디(원래 28)이며 제작연대는 8세기경이다. 2장의 기단석은 장방형으로 만들었고 위아래 굽을 돌렸으며 옆면에는 긴 쪽에 3칸 짧은 쪽에 2칸의 안상을 새겼다. 받침기둥은 소박하고, 윗쪽의 모서리를 죽여서 둥근 원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당간을 고정시키고자 윗쪽에 구멍을 뚫었다. 청주 용두사지의 것과 함께 당간이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부도 : 보물 257호. 높이 2.05미터의 화강암으로 만든 고려시기의 부도이다.

원래 갑사 뒤 계룡산에 있던 것을 1917년에 옮겼다. 8각의 지대석 위에 3층으로 받침돌을 만들었는데 밑쪽이 연잎이 솟아나는 속에 사자가 앉아 있는 모습을, 가운데 층은 구름과 꿈틀치는 용모양의 구름을 새기고, 윗층에는 8각의 구름다리 난간을 새겼고 그 위에 연꽃이 피어나는 모양을 새겼다. 중간받침돌은 8각의 굽은 연꽃잎을 새기고 그 위에 8각의 사리장치, 8각벽에 서 있는 사천왕과 앞뒤 양쪽에 자물쇠를 도드라지게 새겼다. 8각의 가파른 기와지붕을 조각한 위에 보상화를 돌리고 후에 보충된 연꽃봉오리가 놓여져 있다. 빗물이 잘 흐르도록 하기위해서 조각할 때 신경을 쓴 흔적이 밑받침돌의 배수로와 가파른 골지붕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갑사동종(金銅鐘) : 보물 478호. 높이 132.5미터, 지름 0.9미터의 규모. 늦쇠로 만든 것으로 제작연대는 1584년이다. 모든 무늬는 도돌무늬이다. 당초문·연꽃·구름·보상화·지장보살 등이 조각되어 있다.

** 공 주

백제 문주왕(文周王) 때(475) 건도하여 성왕 때(537)까지의 도읍지이다.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사적 13호

백제가 도읍을 정하고 있던 약 60년간에 걸친 왕과 중신들의 분묘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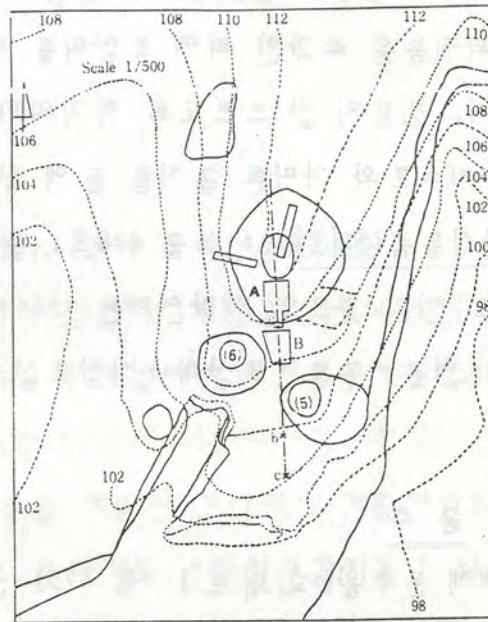
송산리 6호분 : 무령왕릉 바로 아래쪽에 자리잡고 있다. 남북으로 긴 3.6미터 x 2.1미터 x 3미터(높이)의 장방형 터널식 현실에 역시 터널식 연도가 달려 있다. 연도 밑에는 긴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북쪽 벽에 한 개 동쪽·서쪽 벽에 각 세 개씩의 양파모양 등감(燈龕)이 만들어져 있으며, 바닥에는 동쪽벽 가까이에 관대가 하나 있다. 한편 각 벽마다 고운 진흙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른 뒤, 그 위에 흰 호분(胡粉)으로 4신도를 그리고 있다. 천정은 궁륭식 천정이며, 벽과 천정 모두 무늬벽돌을 사용하였다. 송산

이 6호는의 경우는, 연도입구 부분을 축조할 때 벽돌이 코자라서 고촌리 벽돌의 벽돌을 가져다 쓴 것이 밝혀졌다.

송산리 5호분 : 석실분으로 적석벽이 있어 무녕왕의 처자 또는 왕족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무녕왕릉 : 현실 2.5 × 3.8미터, 연도 2.5 × 1.0미터, 배수로 17미터.

1971년 7월, 송산리 6호분에 스며드는 습기를 막기 위해 그 뒤속에서 배수구 공사를 하던중 우연히 발견되었다. 완전히 보존된 처너분으로 출토된 유물은 귀중한 자료가 되어 있다. 왕능은 산의 남쪽 경사면을 폭 3.8미터의 굴이로 파고 들어가 터널형 벽돌무덤을 만든 다음 봉토를 덮은 것으로, 봉토 아래부분에는 약간의 호석을 돌렸다. 벽은 연꽃이 양각된 단단한 무늬벽돌로 쌓았고 바닥은 무늬없는 벽돌로 깔았다. 또 북쪽벽에 한 개, 좌



- 송산리고분군 무녕왕능 부근 -

우벽에 두 개의 양파모양 등감을 만들었고, 그 아래쪽에는 벽돌을 세로로 세워 창살처럼 만들었으며, 따로 긴 배수구가 현실 바닥에서 땅끝까지 연결되어 있다. 왕의 묘지에서는 양나라 오수전(五銖錢) 꾸러미가 놓인 지석(誌石: 매지권), 옷칠을 한 목관, 장식품 등 모두 88종 2560 + 1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무녕왕릉은 묘의 구조 자체가 중국 묘제를 따르고 있으며, 연도에 묘를 지키는 동물을 놓아둔 것이나 부장품도 최소한도의 제기(祭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중국과 유사하다 하겠다. 여기의 지석에 의하면 525년 5월 7일에 죽은 왕이 묘지에 매장된 것은 28개월 뒤인 525년 8월 12일이었고, 왕비 역시 525년 11월에 죽었으나 28개월 뒤인 529년 2월 12일에 무녕왕 옆

百濟武寧王誌石

寧東大將軍百濟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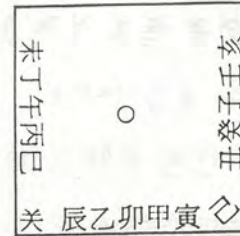
麻王年六十二歲癸

卯年五月丙戌朔七

日壬辰崩到乙巳年八月

癸酉朔十二日甲申安厝

登冠大墓立志如左



(왕. 뒷면)

(왕. 표면)

丙午年十二月百濟國王王妃壽終居喪在酉地己酉年二月癸未朔十二日甲午改塋還大墓立志如左

(왕비. 표면)

錢一萬文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百濟斯麻王以前件錢訟土王土伯土父母上下衆官二千石買中地爲墓故立券爲明不從律令

(왕비. 뒷면)

에 문힌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3년장은 고구려에서도 실시하였음이 중국 측 기록에 보인다. 출토된 유물들은 모두 공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무녕왕능 발굴은 국내외의 큰 관심을 모은 획기적인 일이었으나, 발굴하는 방법이 나빠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왕비의 치아도 추후에 찾아낸 것이었다. 무녕왕능에서 나온 지석은 당시의 토지매매관행을 추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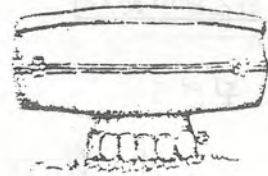
* 중동 석조(石槽) - 보물 148호

공주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안지름 1.34미터, 높이 0.72미터. 백제시대. 석조의 밑부분을 모나게 하여 대아모양을 이루고 두줄의 도돌띠를 가운데 돌

리고, 4곳에 둥근 연꽃무늬도 도드라지게 새겼다. 입술도 둥글게 하였고, 곡
임부분은 후대에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연꽃무늬를 밑으로 돌려 새기고 윗
쪽이 좁아지는 모양을 취하여 그릇의 밑바닥이 평평한 것을 돋보이게 한다.

* 반죽동 석조-보물 149호

지름 1.88미터, 높이 1.75미터. 백제시대,
굽은 연꽃잎을 돌려 새긴 고임부분을 86
센티 사방의 받침돌에 세우고 있다. 둥근 석
조는 고임돌과 하나로 되어 있고 밖으로 58센티
가 옆으로 나오게 만들었으며, 입술부분은 둥
글고 두툼하여 탐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무거운 석조가 무거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



-중동석조-



-반죽동 석조-

* 반죽동 당간지주 - 보물 150호

공주는 반죽동(백제 대통사 자리) 소재. 3개의
도드라진 띠를 당간 겉면에 새기고 옆면의 가
장자리에 도드라진 띠를 돌려 마주보게 한 이
당간지주는, 옆에서 보면 끝이 휘어져 흐르는 선을 그리고 있어 우아하게 보
인다. 8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마곡사

공주군 사곡면 운암리 태화산에 있는 신라 때 창건된 절이다. 선덕여왕 9년
(640)에 자장을 사가 창건하고, 고려 명종 때 보조국사가 증수하였다. 창건
당시에는 30여간의 건물이 있는 대사찰이었으나 오늘날 남아 있는 주요 건
물은 대웅전·대광보전(大光寶殿)·영산전(靈山殿)·시천왕문 등이다.

** 성주

* 용두사지 철당간 - 국보 41호

성주시 변화가의 청주극장과 현대극장 앞에 서 있다. 전체의 높이는 12.7
미터, 지주의 높이는 4.2미터로 지주의 재료는 화강암이다. 네모지고 雙柱
로 된 지주 중간에 철제 당간이 세워져 있고, 20개의 철봉이 쌓아 올려져
있다. 세번째 철봉 주위에는 철당기(鐵幢記)를 양각하였는데 내용은 당간
건립의 유래에 관한 것이며, 김원(金遠)이 지은 것이다. 건립연대는 고려
광종 13년(962)이다. 신라·고려시기를 통하여 무수한 사찰의 건립과 아울
러 당간이 세워졌으나 거의가 당간은 없어지고 돌로 된 지주만 남아 있다.
현존하는 것으로는 계룡산 갑사와 이곳의 철당간, 그리고 나주의 석당간이
있을 뿐이다. 더우기 이 당간에는 명문이 있어 건립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
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 보은 삼년산성 - 사적 235호

보은읍 동쪽에 자리잡고 있는 석성으로 둘레는 1,618미터이다. "삼국사기"
의 기록에 따르면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붙였다 한다.
신라 제 20대 자비마립간 13년(470)에 축조하였고, 소지마립간 8년(486)에 개
축되었다. 김헌창의 난 때 김헌창의 반란군이 여기서 정부군에게 패하였고,
고려 태조가 후백제가 점유한 이 성을 공략하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다. 1979
년에 보은군에서 기초조사를 행하였고, 1982년 충북대 박물관에 의해 연못터
및 수구지(水口址) 발굴조사가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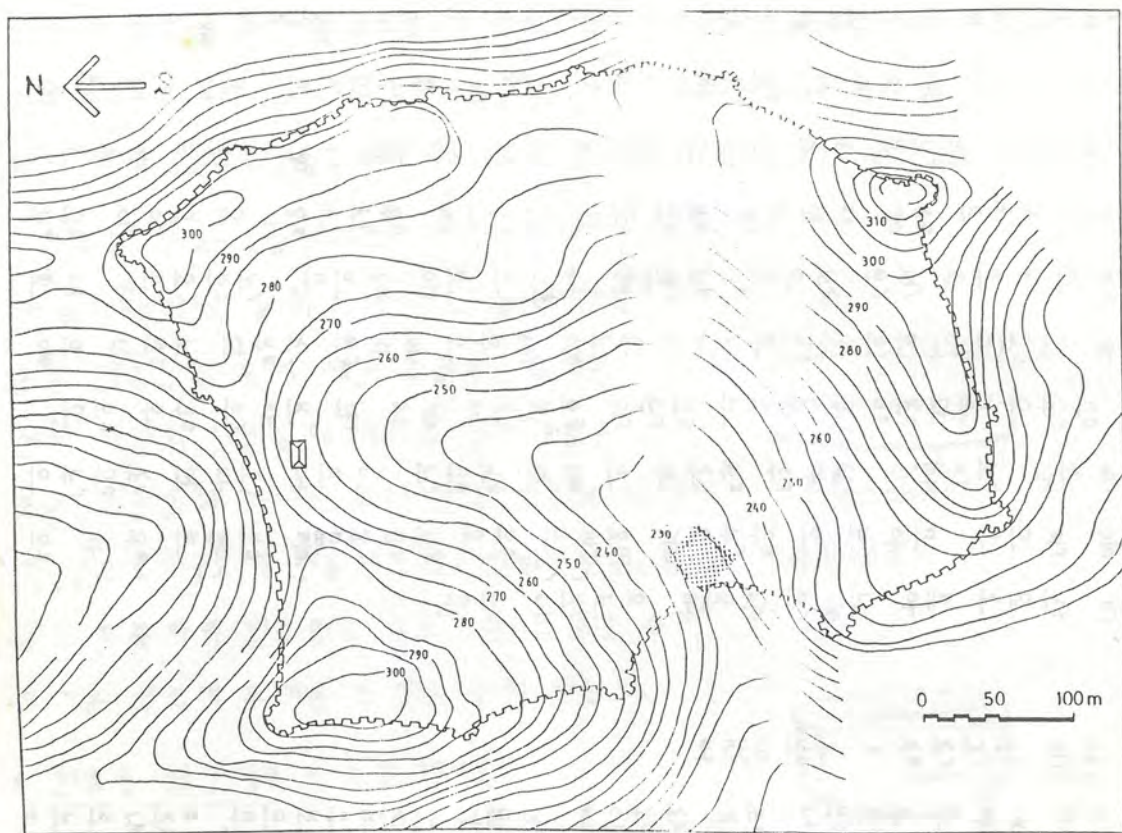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
三年訖功, 故名之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第3, 慈悲麻立干 13年〉

○拜伊食實竹爲將軍, 徵一善界丁夫三千, 改築三年屈山二城 〈同上 昭知 一云 此處 麻立干 8年
春正月〉

○二十八日 至三年山城傳詔 文度面東立 大王面西立 錫命後 文度欲以宣物授王 忽疾作
便死 從者攝位 畢事 〈同上 卷5 新羅本紀 第5 太宗武烈王 7年 9月〉 (文度는 唐의
王文度, 大王은 太宗武烈王 金春秋임)

○十八日……於是 憲昌遣其將 據要路以待 張雄遇賊兵於道冬峴擊敗之 衛恭·悌凌合張
雄軍 攻三年山城 克之 進兵俗離山 〈同上 卷10 新羅本紀 10 憲德王 14年 3月〉 (憲
昌은 金憲昌임)

○丙辰, 自將擊三年山城 不克 遂幸青州 〈高麗史 卷1 世家1 太祖1 11年 秋 7月〉



- 삼년산성 구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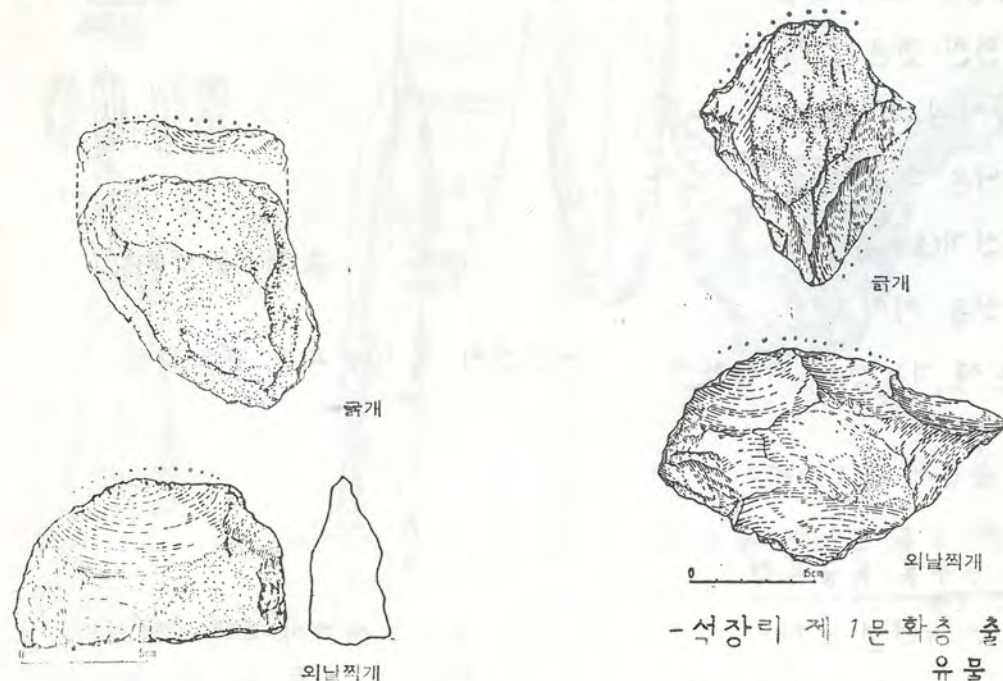
龍頭寺鐵幢記
前翰林學生金遠撰兼書 鐫者孫錫

早聆幢竿所製飭佛門之玉樓播蓋山來
粧寶殿之神旆其猶也鶴翔碧空龍躍
下霄立之者旁發信心望之者心傾丹
愿固知伏魔鐵杖挫賊霓旌頃有堂大
等金丙宗者也州里豪族鄉閭冠族偶因染
疾忽約
佛天仰祈則敬造鐵幢俯瞻則莊嚴玉刹然而
難停逝水易沒黃泉已閱數歲其延隔時
容易於時從兄堂大等正朝賜月銀魚袋
金介一等彼爲還願此繼續釋令鑄
成三十段之鐵簡連立六十尺之幢柱穿雲
捧日貫霧倚空魯氏雲梯難攀龍蓋甘
寧錦纜永敞環繩可謂奉仁心深典亡情切
植金剛之不朽營玉刹之無窮僕者膠柱頑
流尅舟庸物忽蒙勸我聊表短章其詞曰
幢竿始立天半可壓巧成物像莊嚴佛法兄
弟兩家令脩善業鑄之植之无窮永規
當寺令釋綈大德 檀越兼令金希一正朝金守□
金釋同釋希□ 金寬謙大等監司上和尙信學□□
前侍郎孫熙來 前兵部卿慶柱洪大泰學院卿韓明
完泰前司倉慶 奇俊大舍學院郎中孫仁謙鑄□□大
維峻豐三年太歲壬戌二月二十九日鑄成

- 용두사 철당간 명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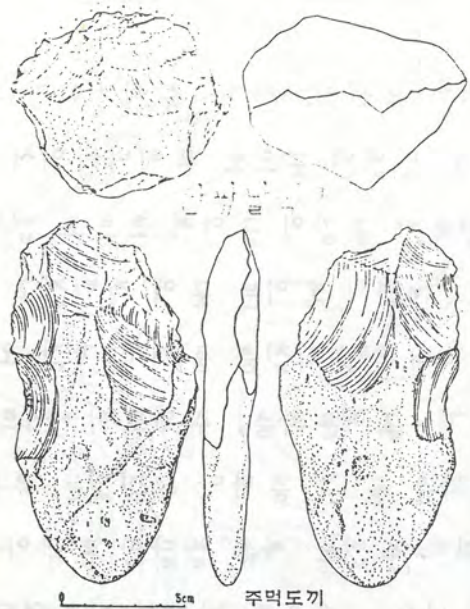
공주 석장리 구석기 유적

충청남도 공주군 장기면 석장리에 위치한 유적지. 전기·중기·후기 구석기 뿐 아니라 중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도 있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우 드물게 노는 훌륭한 선사유적지이다. 앞쪽에 금강이 굽이쳐 흐르고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는 이곳은 겨울에도 따스한 별이 쏘이는 곳에 자리잡고 있다. 시표로부터 11미터의 두께를 이루는 27개의 자연지질층 중에서 가장 오랜 층위인 외날찍개문화층을 비롯, 안날찍개·굴개문화층, 주먹도끼·찌르개문화층, 돌날몸돌문화층, 새기개·밀개문화층 등 각 층마다 특징있는 유물분포를 보이고 있음과 아울러 석기제작에 관한 수법도 차츰 발달한 흔적이 뚜렷하다. 특히 후기구석기층의 집자리에서 나온 숯으로 방사성 탄소연대측정법을 적용한 결과 $20,830 \pm 1,880$ B.P. 라는 연대가 나왔으며, 이의 실제연대는 28,000년전 쯤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자갈돌 찍개문화층은 $30,690 \pm 3,000$ B.P. 이나 약 48,000년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집자리에서 발견한 고택음각·자갈돌에 새겨진 그림·입체조각품 등의 유적은 당시의 예술과 신앙생



- 석장리 제 1문화층 출토 유물 -

- 석장리 제 3문화층 출토 유물 - (전기 구석기). (전기 구석기)



- 석장리 제 9 문화층 출토 유물 -
(중기 구석기)

함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유물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1964년부터 연차로 발굴·조사하여 한국의 구석기문화연구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사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동아시아의 구석기문화 전파와 인류의 이동 및 여러 가지 문화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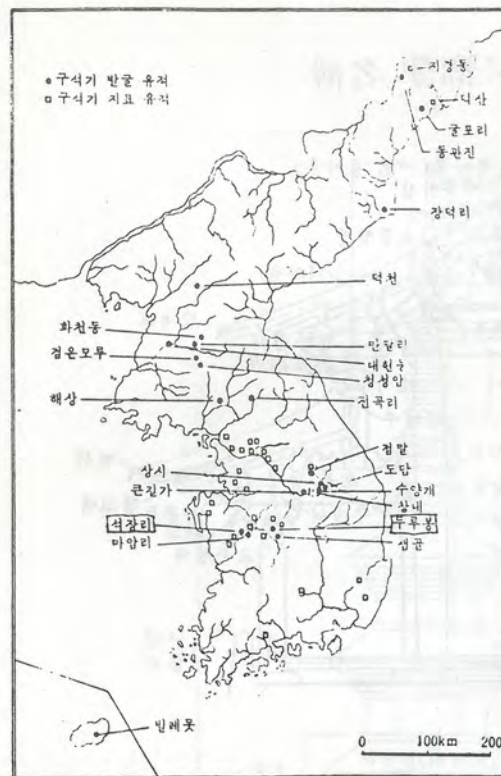


- 석장리 제 10 문화층 출토 유물 -

우리나라의 중석기문화 존재가능성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석장리의 최상층 문화에서 나온 유물의 성격은 잔석기(細石器)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어 그 존재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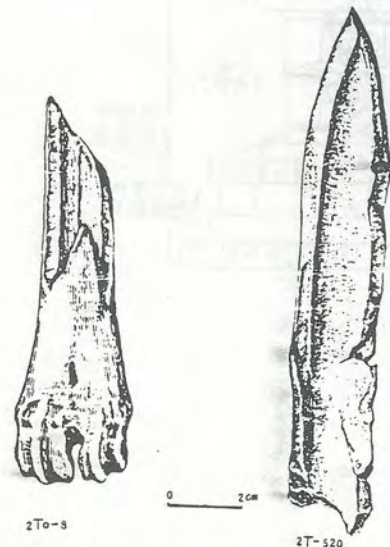
** 청원 두루봉 동굴유적

충청북도 가덕면 노현리 — 중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오래전부터 계속된 석회암 채취로 제 2굴을 비롯한 상당수의 유적들이 이미



- 우리나라의 구석기유적 분포도 -

사라진 상태다.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하였고, 많은 짐승의 화석과 뼈연모·뼈에 새긴 예술품 등을 찾았다. 짐승 뼈로는 쌍코뿔소·원숭이·하이에나·말 등 없어진 종류도 상당히 많고, 예술품은 중기 구석기 때의 슬기로운 사람이 이미 예술활동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유적지이다. 근래에 충북대 박물관에서 다시 조사 발굴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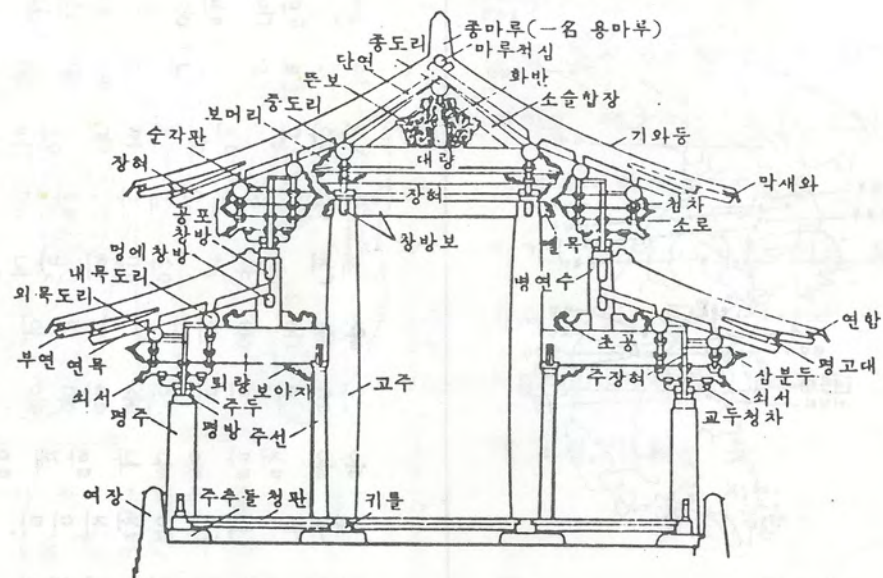


* 두루개와 찌르기 *
(두루봉 제 2굴 출토 뼈연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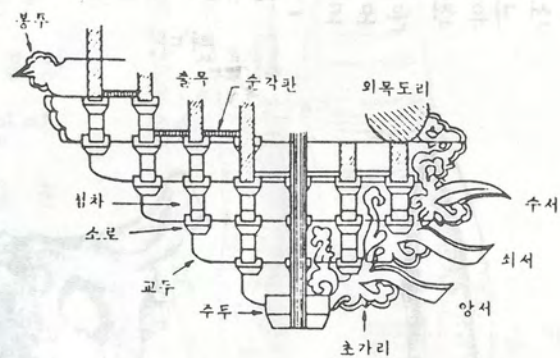


- '들소' 머리모양 예술품 -
(두루봉 제 2굴 출토 예술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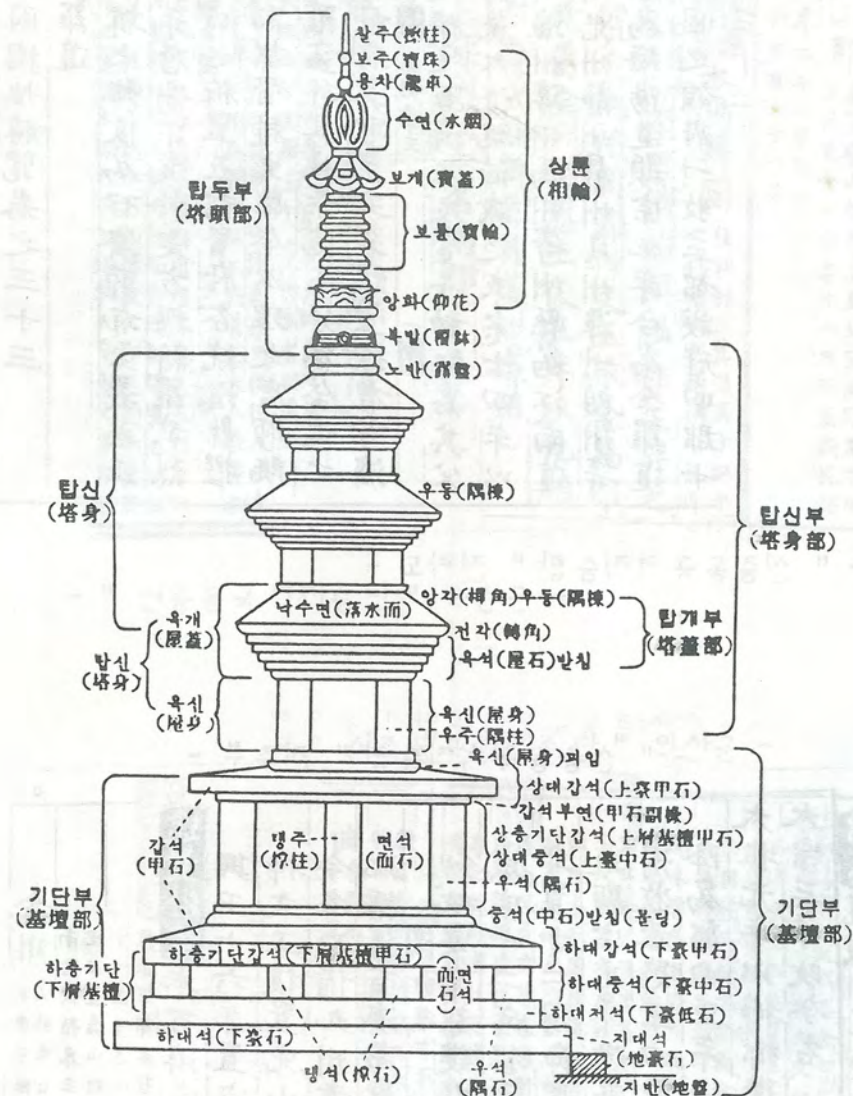
建築物各部分名稱



拱包構成의 圖解



塔 部分 名稱



益山郡 東至礪山郡界十里北至同郡界十九里南至全州府界十七里西至咸悅縣界四十六里

建置沿革

本馬韓國 後朝鮮王箕子之孫也 避衛滿之亂 自後號金馬渚新羅神文王改金馬郡 至高麗屬全州忠惠王後五年以元順帝皇后奇氏外鄉陞為益州本朝 太宗十三年例改今名為郡

郡名 益州

龍華山 在郡北八里 馬龍池 在

金馬渚 在郡南五里 王宮井 在郡南五里 世

彌勒寺 在龍華山世傳武康王既得人心 欲幸 國馬韓一日王與善花夫人欲幸 師

子寺至山下大池邊三彌勒出現池中夫人謂王曰 願建伽藍於此地王許之詔知命法師問渠池術師 以神力一夜顯山填池乃創佛殿又作三彌勒像新 羅真平王遣百工助之有石塔極大高數丈東方石 塔之東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三十三

全羅道

本十韓之地後為百濟所有至義慈王 十九年唐高宗遣蘇定方與新羅武烈 王攻滅之析置五都督府各統州縣擢 酋長為都督刺史縣令以理之唐師既 還新羅盡并其地景德王分為全武二 州都督府真聖王五年甄萱據有百濟 舊地稱後百濟王及萱子神劔篡其父 位高麗太祖親征滅之成宗十四年以 全州瀛州淳州馬州等州縣為江南道 羅州光州靜州昇州貝州潭州朗州等 州縣為海陽道顯宗九年合為全羅道 本朝因之領府一牧三都護府四郡十 四縣三十七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전라도 -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익산군 -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전주부 -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익산군 -

古跡

雙陵 在五金寺西數百步高麗文王後朝鮮 武康王及妃陵也俗號末通大王陵云 而興於此是百濟開國金馬山不稱金馬山 井馬韓後稱其地為金馬渚而後金馬山 蓋之古未有所稱 箕準城 在龍華山上俗傳其 國三十九百尺高 報德城 在郡西一里遺址存 八尺有漢有泉井 報德城 在郡西一里遺址存 行至西海史治為見故宗室安勝迎江賊府官 臣等得國寶等來告新羅曰我先王誠失道見滅今 安勝之金馬渚封報德王遂以凡女妻之後仲文王徵 安勝之族子大文留金馬渚謀殺仲文王徵 從其吏報德城又報王命前士錄討之 設官吏報德城又報王命前士錄討之 曲十五里南 國南州郡以其地為金馬郡 黑石部

全州

東至礪山郡界四十七里西至咸悅縣界四十六里南至同郡界三十八里至任實縣界四十二里北至益山郡界三十七里至礪山郡界六十一里至高山縣界四十一里距京五百六十六里

建置沿革

本百濟完山 一云比斯伐 新羅真興王十六年置完山州二十六年州廢 神文王復置完山州景德王十五年改 今名以備九州考恭王時甄萱建都於 此稱後百濟高麗太祖十九年討平神 劔改安南都護府二十三年復為全州 成宗十二年稱承化節度安撫使十四 年置十二州節度使號順義軍隸江南 道顯宗九年陞安南大都護府後改全 州牧恭愍王四年以囚元使楚思不花 降為部曲五年後為完山府本朝 太祖元年以御鄉陞完山留守府 太宗三年改今名世祖朝置鎮

郡名 甄城 完山 比斯伐 安南 承化 順義軍

古跡半月城

石築周一萬三千六百尺即古百濟郡城也

天政臺

在縣北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而釣得一龍... 龍臺... 龍臺... 龍臺...

益倉古基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蘇定方碑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成忠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階伯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東寬大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東寬大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東寬大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東寬大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東寬大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新增東國輿地勝覽卷之十四

忠清道

古馬韓之域高句麗百濟分據其地後皆為新羅所并高麗成宗十四年分境內為十道以忠州剛歡等十三州為中原道以公運等十一州為河南道睿宗元年合于關內道稱楊廣忠清州道明宗元年分為二道忠肅王元年復合為一道稱楊廣道恭愍王五年稱忠清道辛禰末割道之平昌郡移屬交州道本

朝

太祖四年以楊廣州所領郡縣屬京畿忠清公洪州所領郡縣仍稱忠清道各置觀察使恭靖王元年割寧越郡屬江原道以江原道永春縣來屬

太宗十三年割驪興安城陞竹陽城陽智屬京畿以慶尚道沃川黃澗永同青山報恩來屬馬領牧四郡十二縣三十八

- " 신증동국여지승람 " 충청도 -

- " 신증동국여지승람 " 보은현 -

報恩縣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建置沿革

本新羅三年山郡景德王改三年高麗改保齡為今顯宗九年屬尚州明宗二年置監務本朝

太宗六年

以與保寧縣音相近改今名例

為縣監

十三年自慶尚道來隸本道

負縣監

訓導各

郡名

三年山 保齡 三山 保令

姓氏

本縣金李孫朴崔宋韓來林堰洪

石方

在縣東十里許江北絕巖有臺如臺下臨江水

名宦

新羅裂起三年山

城

在縣東五里即三年山城也築之三年說功故五井今半頽地高麗太祖十一年自將擊此地不克遂幸清州山下有軍藏同世傳太祖屯兵之地

舍林山城

在縣北十里石築周一千四百八十

林堰部曲

在縣東二十里

新增

孝子 朱朝 莫同

大母女俱在

大母女俱在 大母女俱在 大母女俱在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死

- " 신증동국여지승람 " 부여현 -

興首... 興首... 興首... 興首...

501 0 13.

— 112, 14, 29.